

원 래 복 강

대저 세상에 있는 동일한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 과학자의 안목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또 사회 과학자의 안목으로 보면,

사회는 존재론적 또는 변증법적으로 보거나 늘 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문 과학자의 눈으로 볼 적에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

전부 과거에 있었던 것의 단순한 반복은 아니지만,

재현되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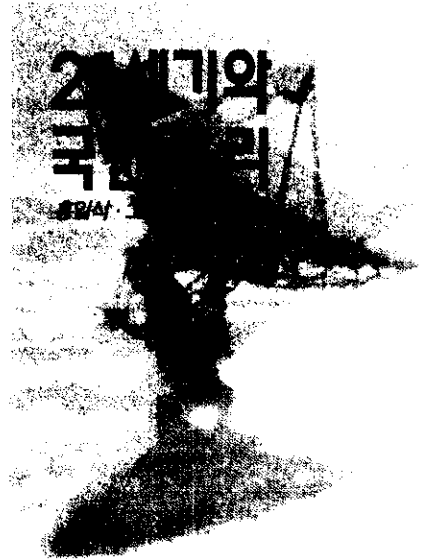
이렇게 학자마다 보는 시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에게 있어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해야 할 것은 사회 구조이며,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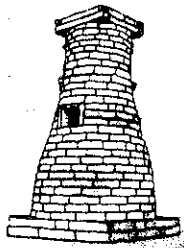
바로 인륜 도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에 부임해보니 전부 이구동성으로 대학의 위기를 말하고 있었는데 그 실체가 재정적인 위기였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도 없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학 스스로가 국가나 기업이 지원하고 싶어지도록 상황을 만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위기보다도 더 절실하고 절박한 위기가 '대학 도덕성의 위기'입니다. 적어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 가운데 대학은 사람을 길러내는 곳입니다만, 끝까지 변치 않는 도덕성있는 인간을 길러내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 전면 광고에 캠페인으로서는 "저희가 먼저 매를 맞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매를 들겠습니다"라는 글을 실은 적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바른 교육, 큰사람 만들기'를 위한 교육 선언의 대전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른 교육, 큰 사람 만들기'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교육이라는 것을 얘기했더니, 교육이 잘

못되었으니까 바른 교육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큰 사람 만들기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나. 전부 대통령감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냐. 지금 현대의 민주 사회에서 어떤 우두머리보다도 하나의 성실한 구성원을 만드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그 큰 사람의 실체가 무엇이나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큰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논리적·학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배경을 말씀드리으로써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논문을 한 편 쓰기 위해서 도서관의 자료를 조사하다가 조선조 중후기 영정조시대의 실학자인 아정 이덕무 선생의 문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집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문집 가운데 한 부분인데, 士小節이라는 것입니다. 제목대로만 풀이한다면 '선비가 지켜야 할 조그마한 예절'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워다보니 정말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찰박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무더운 긴긴 여름날 나그네 7, 8 명이 길을 걸어갑니다. 날이 아주 더우니까 맑은 비오 듯하고, 지치고, 또 시창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을 지나가다 임자없는 배밭을 발견했는데 배가 주렁주렁 아주 탐스럽게 달려 있더랍니다. 주인이 없는 것같이 누가 먼저랄 것

도 없이 일행이 모두 달려가서 시원한 배를 한 두 개씩 따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들 가운데 한 명이 팔짱을 끼고 배 먹는 것에는 관심도 없이 혼자 외롭게 먼 산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거의 다 먹고 있었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선비에게 “당신은 이 시원하고 단 배를 왜 먹지 않느냐” 하니 그 선비가 하는 말이 “저 배에는 주인이 없지만 나는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습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선비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혼자 추적·상상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이고 도덕이고 배운 사람의 자존심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누가 본다고 삼가고, 안 본다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보든 상관없이 ‘자기의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지성의 힘’이 주인의 실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통 군자다, 현인이다 또 한층 더 높여서 大人 또는 대장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요새 말로 옮겨 바르고 큰 사람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큰 사람은 세속적인 권력이 많이 있는 대통령이나 군장성이 아니라, 진짜 보편적으로 인류 사회 어디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옛말로는 군자요, 현대말로는 큰 사람으로서 미래의 한국인 상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

다.

어느 시대나 그 나름대로의 절대 명제, 최고 가치는 게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흔히 ‘시대 의지’라고 합니다. 가령, 개화기의 시대 의지는 누가 뭐라 해도 국권 수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수가 불길해서 우리는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일제 36 년간의 시기에 시대 의지에 입각한 민족적 절대 명제는 국권 회복을 선행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8·15 광복 이후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민족적 시대 의지에 입각한 절대 명제·최고 가치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내적으로 분단 시대를 극복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제화·세계화에 차질없이 동참해서 성공적으로 민족사를 주도해나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 분단 시대를 극복하는 것이 올바른 국제화·세계화로 가는 것이지, 분단 시대를 극복하지 아니하고 국제화·세계화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어느 정도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파행적이고, 온전한 세계화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동전의 안팎과 같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적 절대 명제인 분단 시대를 극복하는 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이면 통일되고 극복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며 그것은 상당히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정신 문화인 도덕입니다. 이것이 없으

면 결국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것이나, 사람의 병은 고치고 사람은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역사 발전에서 만고의 진리입니다.

동서독이 통일될 때 “참 묘하다. 이상한 일도 다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미줄같은 엄청난 비밀 경찰 조직이나 공산당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치밀한 조직과 정보 체계가 있는데, 어떻게 호네이커를 중심으로 몇몇 사람만 제외하고는 저항 한번, 해외로의 대량 탈출 사건 없이, 고스란히 서독에 흡수 통합된 이유를 서방에서는 구서독의 경제력 때문이라고만 합니다. 만일 구동독의 중간 간부들이 무기, 군대, 조직, 정보망이 있는데, “통합되면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을 했다면 저항을 안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 엄청난 그 조직 속에 있는 핵심 분자들은 “구서독에 우리가 흡수 통합되어도 우리 생명은 보장받는다.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그들은 대량 탈출했거나 저항했었을 것입니다. “나야 인생 다 살았지만 내 자식들만은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항하지 않고 흡수 통합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혹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돈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

리의 현주소

고급 정신 문화의 부재

지금 우리나라에는 고소득자가 많고 자기 자신을 중

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 70%라는 얘기를 듣고 아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고학력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내에서 배출되는 대학, 대학원 출신 외에도 해외에서 매년 6,000여 명이나 되는 고급 인재들이 학위를 받고 귀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소득층과 고학력자 다시 말하면, 사회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리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즉, 상류 계급이 있는데 상류 문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지식만 배워 복잡한 현대 사회에 대처하는 요령만 알았지, 석사나 박사, 교수랍시고 이웃간에 속된 말로 목에 힘주고 인사도 잘 안하고 거들먹거리니까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돈 많은 사람이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가 어떠냐는 참 기품없는 천민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몸에 좋다고 하면 갖은 혐오 식품을 먹는 등 온통 나라 안팎에 망신살을 뽐치고 있기 때문에 존경을 못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과 이웃해 있는 중국 연변을 통해 북한에 들어감을 어느 기회에 고위층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문 과학하는 사람의 허황된 소리로 듣지 마

시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는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조선족이 많이 사는 연변이나 그 근처에는 기업들이 절대 진출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뜻은 기업은 투자하고 이윤 추구하는 것인데, 이윤을 추구하다보면 인건비 싸고 많은 노동력을 활용하니까 그 현지인들과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 현지인들은 아주 이윤 배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젊은 사람들의 아버지들이 6·25 동란 때 통역관으로 왔다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돈을 가져오니까 굶신굶신 하지,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남조선 사람들이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허영, 허세와 교만을 부리면 자연히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 소문이 북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조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지만,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 돈이면 애비나 자식도, 형제간도 없이 죽이고 죽고 난리라더라. 짐승만도 못하여 돈없는 사람은 개나 돼지 취급한다더라”라는 소문이 북한에 들어가면 죽으면 죽었지 그들은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부는 고사하고 일반 평민들까지도 통일되어봤자 남조선 사람들의 종살이밖에 못하고, 젊은 여자들은 몸 파는 창녀밖에 못될텐데 통일을 왜 하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돈을 잘못 쓰면 오히려 안 쓰는 것만도 못합니

다. 연변이나 그 국경 지대만은 그저 도와달라고 하거나 학교를 세워달라고 하면 여유가 있을 때 세워주고, 책을 보내 달라면 책이나 보내주는 등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남조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문화적으로 고매하고, 점잖고, 의젓하고, 동포애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사람마다 효자·효녀이고, 형제간에 우애있게 잘 사니 우리 북한이 남한과 통합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우러날 적에 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의 현 주소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녹지캠퍼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군단이 있기 때문에 종종 가보곤 합니다. 한번은 그쪽에 가니까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아마 배구하러 모여 있었습니다. 배구를 하려면 흰선을 그어야 하는데 그 흰선을 밀가루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선을 그었느냐 물었더니 우리 돈으로 사왔는데 왜 그러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화폐 가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식들이요 내 손자들입니다.

이 책임은 이들을 가르치지 않은 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르치지 않으면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 속에 仁義禮智의 기본 본성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짐승과 똑같고, 어떤 면에서는 짐승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의 「격몽요결」이라는 책의 첫장·첫줄에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짐승은 일단 배만 부르면 먹이를 안 찾는데, 인간은 배부른 것과는 상관없이 만족을 모르고 무한 권도를 질주하는 탐욕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세계적 보편주의의 수용 · 안주

지금 우리가 통일 시대를 거쳐서 국제화 · 세계화 시대로 가는데, 세계화 · 국제화를 무슨 새로운 테마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론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화 · 세계화를 겁낼 필요가 없는 우리 민족의 주특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만큼 이 한반도에서 고유한 영토, 주권, 혈통, 언어 그리고 문화를 지니고 살 수 있는 힘의 열쇠는 우리가 아주 일찍부터 사납고 용맹한 민족이어서 무력으로 중국과 이마를 맞대고 버티며 살아온 것이 아니고, 결국 문화의 힘입니다. 그 문화의 실체는 보편주의를 빨리 수용해서 거기에 영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고려 말까지를 중세 전기라고 하고 그 이후를 중세 후기로 시대를 구분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중세 전기에 동양 사회의 보편주의라고 하면 불교 사상 · 문화입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가 공식 기록으로는 소수림왕 2년에 들어왔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보다 앞서서 들어왔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조금도 저항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신라의 이차돈의 순교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

려 왕권이 도전을 받을까봐 왕실에서 탄압한 것이지, 민중에서 일어나서 외래 사상인 불교를 거부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것은 조선조에 카톨릭이 들어올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간에서는 오히려 신부들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왕실에서 정치적으로 탄압한 것이지, 민간에서 일어나서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나라의 주특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주의를 빨리 수용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삼국이 골고루 그랬습니다.

중세 후기에는 조선조가 등장하면서 동양 사회에 불교가 쇠퇴하고 유교 문화가 보편주의로 되었습니다. 동양의 보편주의 문화의 중심지인 중국의 유교, 성리학으로 바뀌자 1,000여 년 동안 받들었던 불교를 하루 아침에 버리고 새로운 유교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구상에 아주 유일한 민족입니다. 불교를 1,020년 동안이나 국교로 받들었지만 우리 백성들이 다 불제자가 되었다거나 또는 이 땅이 불토국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수단으로 이용했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아주 절묘한 민족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보는 건데, 다시 또 유교 문화가 들어오니까 排佛 崇儒 정책을 하면서 장장 500 년간이나 조선 왕조가 지속되었습니다. 하나의 왕조가 500 년을 지탱했던 것은 우리

나라 외에는 이 지구 상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우리 백성들이 무기력해서 그랬다고 합나다만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 사관입니다. 적어도 500년, 1,000년을 하나의 왕조가 지탱했다면 거기에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도덕적 정당성과 논리적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왕조의 사대부들이나 양반 계급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것만 배워 알고 있지만, 그 양반들에게는 백성들로부터의 존경과 우러름, 그리고 따르그자 하는 도덕성이 있었기 때문에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조선조 후기에는 타락하고 잘못된 양반들도 있었으나, 적어도 조선조의 상류 계층인 양반들에게는 상류 문화 즉, 기품있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건축학자가 얼마 전에 와서 우리나라에 불가사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종로 3가에 있는 종묘와 경복궁의 건축인데 정말 건축 미학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인간의 솜씨보다는 신의 솜씨 같아 정말 절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화와 석가래의 곡선미를 보니 일본의 건축도, 중국 천안문 자금성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자연 환경에 그렇게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어 인간의 솜씨 같지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축을 한 민족이 분당 신도시 같은 부실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입니다. 역사가 있고 민족 문화가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서 외래 보편주의를 세계적인 보편주의로 수용·안주하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 선상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상을 여기에 대입시켜보면, 서방 세계의 보편주의인 자유민주주의를 빨리 수용·안주하고 또 자본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 원리를 빨리 받아들여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

리의 나이갈 길

우리 개성적인 문화의 접목

그러나 이것이 현상 유지나 생존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지속적 번영과 발전의 논리는 안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적인 것을 접목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종래의 군사패권주의나 경제만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을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시대요, 정보화 시대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에는 개성이 있기 때문에 개성이 있는 문화가 접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라의 삼국 통일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한 것이 외세에 의한 것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외세를

끌어들여 同族을 정복해서 부도덕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무력으로 통일했다고 한다면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력으로 정복했기 때문에 곧 통일 후에 후삼국으로 다시 분열됩니다. 이러한 통일은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통일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역사적인 평화 통일의 상징은 고려의 태조 왕건의 후삼국 통일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생전에 후백제 건원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여 완전한 평화 통일은 아니지만, 하여간 평화 통일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다른 민족을 통하여 동쪽을 정복했다는 것에 대한 도덕성의 시비는 조금 역사적 진실과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면에 나타난 사실보다도 그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신라 통일이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민족 의식 형성의 기틀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그런 의식이 제대로 형성된 것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입니다. 고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광종 때에 비로소 민족 의식·동족 의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민족 의식·동족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것은 거란의 침략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얼마 전에 호소가와 前 일본 수상 내외가 우리나라에 와서 백제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은 백제를 '구다라'라고 부릅니다. '구다라

'라고 하니가 우리 측의 학자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호소가와 수상 내외가 "그러면 한국에서는 백제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해서, "백제라고 부른다" 하니 "한국에서 백제라고 하는 것을 왜 일본에서는 구다라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해서, 이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다라'라는 말은 낙화암에서 15 분 내지 20 분 내려가면 '구드레'라고 하는 나루터에서 생긴 것입니다. 구드레는 옛날 항구로서 여기서 일본도, 신라도, 당나라도 가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도시 국가처럼 백제는 이름만 공식 명칭으로 쓰지 이웃에 있는 도시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백제에 갈 때 "구드레 간다"고 하지 "백제 간다"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또 신라도 마찬가지로 서라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당시 삼국이 점령되어 있을 때,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백제도, 고구려도, 바다 건너 일본도, 당나라도 조금 더 멀리 있는 이웃일 뿐입니다. 아직 민족 개념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가깝고 먼 차이뿐이지, 그냥 도시로 다 통하는 것입니다. 문자는 한문으로 다 통합니다. 따라서 동족 개념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이민족을 끌어들이다가 동족을 정벌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평화 통일하지 않고 무력 통일한 것이 유감스럽다면 말이 됩니다. 그러면 후진국이고 불교도 제일 늦게 들어왔

고, 지정학적으로 봐서 농토가 별로 없는 아주 경제적으로 후진 국가인 신라가 국력이 막강했던 고구려나 문화가 찬란하고 호화로웠던 백제를 제치고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된 것은, 고구려나 백제는 보편주의로서의 불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으로 그랬으나, 신라만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냥 보편주의에만 안주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라적인 특수성을 접목을 시키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위 '현묘지도'라는 사머니즘입니다. 신라가 보편주의인 불교에다가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사머니즘을 접목을 시켜 만들어낸 호국불교 즉, 화랑도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기상을 진취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적 보편주의인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자본주의적 보편주의인 시장 경제 원리를 빨리 수용을 해서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자기 한계를 노정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도약인 세계화·국제화를 도모해나가자면, 여기에 우리적인 개성이 넘치는 문화와 접목이 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북 통일 문제도 분단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의 통일 조국, 소위 '신국가 건설'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즉, 세계적인 보편성에 우리적인 특수성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민족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고 세계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맺

말

끝으로, 우리에게는 고급 상류 계급은 있지만 상류 문화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조에 사대부들이 모든 국민의 본보기가 됐고,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사람들로서 최고 간부든, 중간 간부든, 하급 직원이든 정말 참 남다른 데가 있고 품위와 기품이 있는 것이 옛날의 양반답다는 새로운 양반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말과 행동은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양인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의 기복이 있는 이상, 격하면 교양인이라고 하더라도 난폭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선인들의 지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10년 합병 이전에 우리나라는 고리 백정이 아니고는 부부간에 '반말'이나 '해리'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내외간에 그렇게 가까운데도 행실을 삼가하여 예방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말을 정중하게 존대말을 하면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돌아 앉아서 말을 안할지언

정 남편이 아내에게 손찌검이나 난폭한 행동을 못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남편에게 존대말로 하면 감히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날 경찰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경찰이 첨단 경찰이며, 의학도 마찬가지로 병나지 않게 예방 하는 의학이 첨단 의학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부부간에 정중하게 말함으로써 그 전통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퍼졌던 반말하는 나쁜 습관을 고치고 존대말 쓰는 것을 실천한다면, 이 사회의 엘리트로서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 사회에 밝은 내일이 약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